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 한인 사진작가로 알려진인연함길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스카이 엄 집사(스튜디오 볼 대표)가 최근 탄자니아 마사이족 민속 촌과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그들의 생활을 경험하고 사진으로 담아와 사진첩을 냈다. 40대 중반으로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 집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악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성경책이 있는 '꿈꾸는 희망 도서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세리토스장로교회 3대 담임에 박규성 목사 청빙



세리토스장로교회 박규성 목사(사진)를 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교회 당회와 청빙위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를 제 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세리토스장로교회는 박규성 목사 집회를 31일 토요일예배와 9월 1일(주일) 1,2,3부 예배 때 열 예정이다. 앞으로의 과정은 오는 8일(일) 공동의회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세리토스장로교회는 지난 6월 2대 담임 김한요 목사가 사임을 하자 그동안 담임목사를 청빙해 왔다. 박규성 목사는 퀸즈장로교회에서 지난 2011년에 장영춘 목사에 이어 2대 담임으로 위임했다. 박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졸업했으며, 브라질 서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역임한 바 있다.

社 告

본보 주관, 영상설교 교회 영상물 제작 세미나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목회 환경 또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보다 효율적인 전도의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감성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한 교회 홍보 및 교육, 설교에 도움을 주는 <영상설교 및 교회 영상물 제작 세미나>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영상설교 LA 지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9월 24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LA 시크릿가든 식당홀(Olympic+westlake)에서 열린다. 추첨을 통한 경품(노트북) 등이 마련되며 회비는 10불(중식 포함). 후원은 본보를 비롯해 남가주교협, 남가주중부교협, 실버아카데미, 한국장의사 등이 한다. >문의: (213) 321-4433(곽부환 목사), (213) 255-1725(양경선 목사)

목회자들의 우울·불안지수, 일반인들보다 높아

듀크대 목회자건강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목회자들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우울과 불안에 노출돼 있었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8월 31일 듀크대학교 신학대학원 산하 '목회자건강연구소(The Clergy Health Initiative, 이하 CHI)'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 1,726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우울증 유병률은 대략 8.7~1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기준인 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목회자들 중 불안해하는 비율은 13.5%였으며, 불안과 우울증을 합

계 겪는 목회자들의 비율도 7% 이상이었다.

CHI의 Rae Jean Proeschold-Bell 연구 책임자는 “목회자들은 사역과 밀접히 관련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의 건강이 사역의 상태에 좌지우지된다. 목회가 잘 되어간다고 느낄 때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우울과 불안은 주로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직무들, 특히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한 상담, 교인들의 요구 충족, 매주 드리는 예배 설교 준비 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목

회자들에게 교인들을 위한 헬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것을 권면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목회자들이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목회자들도 사역을 떠나 교회 밖에서 친교를 형성하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이들이 이를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분쟁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시킨다”면서 다양한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분쟁을 잘 다뤄줌으로써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교인들도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목회자가

교회 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목회자가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고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울증에 빠지는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때로는 교인들과의 상담조차도 버거운 경우가 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정말 높은 수준의 책임을 원한다면, 이러한 책임감으로 목회자의 우울증 발생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도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는 다음 3개월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연구 결과는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에 게재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남가주 목회자 초청

영상설교 및 교회 영상물 제작 세미나

세상은 IT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보고 느끼는 감성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목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교회가 효율적인 복음전도 수단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영상 설교 LA지부에서는 감성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한 교회 홍보, 교육, 설교에 도움을 드리는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목회자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자리관례로 선착순 등록을 받습니다. (개인 노트북 지참 필수)

- 일 시: 2013년 9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오후4시
- 장 소: 시크릿 가든 식당 홀(Olympic+Westlake in LA)
- 회 비: \$10(점심 제공)
- 경 품: 노트북 1개 및 기타(추첨)
- 주 최: 영상 설교 LA 지부
- 후 원: 남가주교협, 남가주 중부교협, 기독일보, 레이저비전, 한국장의사, 노트북샷닷컴, 실버아카데미, 코리안 가정 양로원
- 등록문의: 회장 곽부환목사(213-321-4433) 총무 양경선목사(213-255-1725)





美 성인 70% 이상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쳐야”

미국의 도덕과 가치 쇠퇴하는 것 우려

바나 그룹이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 성경 실태'(The State of the Bible 2013)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3 이상이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66% 이상이 학교 내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75% 이상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도덕적인 규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응답자의 77%는 미국의 도덕과 가치가 쇠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경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지지하

는 응답자 중 거의 45% 이상이 “이러한 커리큘럼이 종교에 대한 단순한 흥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32%는 공격의 원인이 될 것을, 11%는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걱정했다. 9%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만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미국성서공회 덕 버드셀(Doug Birdsall) 박사는 “학생들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이 ‘기독교는 다른 이들의 종교’라는 사고로부터 보호하

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의 영향으로, 우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인 성경에 대해 무지한 세대를 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TV 미니시리즈 ‘더 바이블’ 제작자인 마크 버넷(Mark Burnett)도 버드셀 박사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지난 2월 ‘The O’Reilly Factor’에 출연해 “나는 정말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다. 젊은 미국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20대 중반에 리우 데 자네이루, 베를린, 파리와 같은 해외로 건너가 사업을 하면서도, 다윗과 골리앗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 바이블’ 시리즈의 주연을 맡았

던 로마 다우니(Roma Downey)와 그녀의 아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글을 통해 공립학교 내의 성경 교육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전한 바 있다. “성경은 수 세기에 걸쳐서 셀 수 없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왔다. 예술, 문화, 철학, 정부, 자선 활동, 교육, 사회 정의, 인도주의 등 성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러한 중요성이 학교 내에서 정규적으로 교육된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정치권이 놓은 ‘장애물’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이것을 바꿀 때가 됐다. 용기를 내야 할 때이다. 서양 문명화의 주된 기록으로서의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미 대법원은 1962년과 1963년, 주에서 후원하는 기도와 학교에서의 의무적 성경 읽기가 미국의 제1수정헌법을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데 그들의 개인적인 시간과 역사를 가르치는 자발적인 수업 역시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6-22일 약 1,005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과 1월 17-23일 1,078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본인이 원해도 안 돼”

캘리포니아, 동성애 치료 금지

제9항소법원, SB1172법 관련 소송 기각

미국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제9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일명 ‘동성애 치료 금지법’에 대한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최근 유사 법안이 통과된 뉴저지와 이 법안이 논의 중인 메사추세츠 등, 다수의 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명 SB1172로 알려진 이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성향 치료를 금지한 것으로, 미국 내 최초로 이 법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녀의 정신적 치료를 원천봉쇄한 법으로, 이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치료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없으며, 의사 역시 치료를 할 수 없다. 심지어는 본인이 치료를 받기 원하더라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해 놓았다.

테드 리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동성애나 양성애는 병이나 결핍 상태, 장애가 아니”라고 규정 후, “이런 성향을 고치려는 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된다”고 했다.

이 법이 발효되자 반대측은 “이 법

은 의사들의 치료권리를 제약하고 부모들의 자녀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3명의 판사들은 8월 29일 오전(현지시간) “이 법은 전문가들의 치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의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정신과 전문의들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캘리포니아 주는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권도 주가 합리적 판단에 의해 위험하다 규정한 의학·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권리를 포함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리버티카운슬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뉴저지에서도 유사 법안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으로 혹은 겉으로 동성애혐오증을 지지해 왔다. 우리는 이 점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기자

빌리 그레함의 ‘나의 희망’ 프로젝트, 하와이서도 인기

30여 교회 참여해 훈련받아

1일 카리스마뉴스(CHARIS-NEWS)의 보도에 따르면, ‘빌리 그레함 목사’와 함께 하는 나의 희망 미국’이 하와이에도 소개됐다.

하와이피시픽침례교회(Hawaii Pacific Baptist Convention)에서 예배의 인도, 기도와 전도를 맡고 있는 마이클 아바곤(Michael Abagon)은 “하와이인들은 매우 여유 있고, 느긋한 편이다. 이들은 ‘나에게 복음을 강요하지 말라.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하와이는 매우 관계성 중심의 공동체들이 많다. 관계전도를 위한 ‘빌리 그레함’과 함께 하는 나의 희망 미국(My Hope America with Billy Graham) 프로젝트가 하와이에서 큰 인기를 얻는 이유다. 이 프로젝트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식탁교제를 나누며 설교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다.

아바곤은 “하와이에는 음식들도 많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은 위로자로서, 여러분



은 믿음의 사람들과 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몇 달 전, 아바곤은 침례교회에서 ‘나의 희망 미국’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1시간짜리 웹세미나에 참석했다. 15개의 교회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석키로 하고 훈련을 받았다.

아바곤은 지난달 27일 다른 교단에 소속된 30개의 교회들을 세미나에 초대했다. 웹세미나를 통해 ‘나의 희망 미국’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결단의 순간’의 일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 가운데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도 포함돼 있고, 21일 동안의 기도 안내

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바곤은 “결단의 순간은 매우 강력한 동영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마우이섬, 몰로카이섬, 오아후섬, 카우아이섬, 빅아일랜드 섬 등에서 진행되는 ‘나의 희망 미국’행사에 약 60개 이상 교회가 참석할 예정이며, 캄에서는 오는 11월 7일 빌리 그레함 목사의 95번째 생일을 맞아 전국적인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바곤은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해 왔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보고 있다. 빌리 그레함의 사역은 모든 교단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팅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보는 실내를 향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 / 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바이블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성경원전 및 서양고전 연구원”은 그 이름을 “바이블 아카데미”로 바꾸고 이번 9월 16일부터 유인대학교 신학대학과 제휴하여 다음과 같은 강좌들을 개설합니다.

강좌 소개

- 1. 월요일(저녁 7-9시): 성경희랍어 I**
희랍어 성경원전을 읽기 위한 희랍어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희랍어는 물론 희랍의 문화와 사상과 함께 희랍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희랍사상과 히브리사상과의 차이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강료: 3개월에 100불)
- 2. 화요일(저녁 7~9시): 사도바울의 희랍선교**
사도행전 16~18장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희랍선교를 당시의 사상적·문화적 배경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성경과 함께 희랍문화와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강료: 무료)

장소 : The First Baptist Church
주소 : 760 S Westmoreland Ave, #14-16, LA, CA 90005 (8가 @ 버몬과 후버사이)
전화 : 213.386.6632, 213.200.9174
e-mail : syngwonsuh@yahoo.com

강사 소개

학력
1972년 :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수학과 졸업
1974년 :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미학과 졸업
1977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
1977~1991년 : 14년간 회람국비장학생으로 국립 아테네 대학교에서 고대희랍철학, 역사, 종교, 문학 등 고대희랍문화 전반에 관해 연구
1991년 : 동대학원에서 “플라톤의 국가, 교육 예술”에 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 취득 (Summa Cum Laude)
1999년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 입학
2000년 : 교수들의 추천으로 2년간의 Full Scholarship을 받고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로 전학
2002년 :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신약학 전공) (개혁사 학생 및 교수들을 지도)

경력
1992년 3월~1994년 7월 : 서울대학교, 숭전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고대희랍철학, 문학 및 희랍어 강의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비로소 강의다운 강의를 듣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1995년~2011년 : 월드미션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미주총신대학교 등에서 신학, 철학, 희랍어, 히브리어 강의, (학생들로부터 한국제일의 신학자라는 호평을 받음)
2013년 현재 : 유인대학교 신학대학장 및 Bible Academy 원장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꿈꾸는 희망 도서방' 만들기

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스카이 염 집사

바야흐로 평신도 시대다. 평신도들로 하여금 세계선교에 앞장서라는 시대적 요청이 뒤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선교는 '양'이 아닌 '질'로 승화될 때, 즉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 현장화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평신도들에 의한 복음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기록돼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순교자 스테반이 성령에 취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를 통해 복음이 크게 확장됐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 그곳에서만만이 아닌, 이 시대 바로 이곳에서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있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진작가 출신으로 남가주에서 스튜디오 봄(Studio Bom)을 운영 중인 스카이 염 집사(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40대 중반으로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개월 전엔 탄자니아 마사이족 민속촌과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그들의 생활을 경험하고 사진으로 담아와 사진첩을 내기도 했다. 말도 못하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성경책이 있는 '꿈꾸는 희망 도서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스카이 염 집사가 탄자니아에서 직접 담아온 사진과 선교편지 전문이다. <편집자 주>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맑습니다. 인종이나 민족 또는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그들만의 순수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아이들 또한 비록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내전으로 부모를 잃거나 다친 아이들, 또한 에이즈에 무방비 상태로 내



스카이염 집사

버려져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는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운명은 그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탄자니아 마사이족 마을에 머무는 동안 벼룩에 팔과 다리를 100번이 넘게 물릴 정도로 비위생적 환경, 쇠똥으로 만들어진 '보마'라는 집에서 수 많은 파리떼와 사는 거주 환경, 옥수

수 가루를 끓여 만든 '우갈리'를 하루 두 끼도 먹기 힘든 부족한 실정,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물 부족...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곳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한두 시간 이상을 걸어서 작은 연못에 갑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러 온 가족들의 배설물을 걱정해야 하고, 가끔 연못에 빠져 죽는 동물들의 사체로 연못이 오염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8월이면 건기가 시작되어 곧 연못이 말라 버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양동이에 떠진 물로는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탄자니아 마사이족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착하고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경책이 있는 꿈꾸는 희망 도서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 큰 즐거와 몸통이 되고, 또한 책과 위인전 등을 통해 스스로의 자존감이 형성되어 자신의 멘토링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목표도 뚜렷하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곳의 커뮤니티 의식을 바꾸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과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뿌린 씨앗이 아름답리 나무로 성장되어 자칫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큰 숲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메일: studiobomus@gmail.com



스카이 염 집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찍어온 아이들의 일상 모습.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 (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역도넛, Wilshire

청소년 사역에 '올인' 청소년비전센터 '자녀사랑' 찬양제 연다

남가주중부교협 KYVC 주관 오는 22일 감사한인교회서

남가주중부교협 산하 한인청소년비전센터(대표 김영길 목사, 이사장 김영대 목사)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위한 찬양제가 열린다.

제 1회 자녀사랑찬양제가 오는 9월 22일 오후 6시에 감사한인교회에서 남가주중부교협(곽소진 회장) 주관으로 개최된다. 찬양제는 청소년 사역을 위한 모금과 뜻을 모아가는 취지로 열린다.

청소년비전센터(KYVC)에서 펼치고 있는 사역은 매주 한번씩 남가주지역의 5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300여명의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KYVC는 비행과 마약, 그리고 여러 사회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 '해피라이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고, 'Dream&Job Fair'로 일컫는,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명사들을 학교로 초청해 강의를 열어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과 3.1절 한글로 글짓기 대회, 경찰서와 연계에 마약방지를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의 협찬으로 펼쳐 왔다. 앞으로 비전센터는 청소년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유스비전 컨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대 이사장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큰 관심을 일으키는 찬양제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이번 성가 찬양제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비전센터의 일선사역자 이진희 목사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것과 미래에 대한 부담이 많다. 요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남학생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찬양제에는 교회 성가대 및 합창대 등 총 11개 팀과 어린이합창단이 참여하게 된다. 특별히 카이로스미션워십댄스(김민경 선교사)도 참여한다.

청소년비전센터는 지난 2007년 1월에 설립돼 지금까지 여러 교회와 학부모들과 목회자들이 도움으로 청소년들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문의: (714) 904-6298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중부교협의 한인청소년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위한 찬양제가 22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왼쪽부터) 비전센터 임원인 전동은·김영대·이진희 목사가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UCS 신학대, I-20 품 발급 자격 취득

학교 산하 조은아침선교회, 매주 토요일 섬김 활동에 열심

UCS신학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최근 유학생에게 SEVIS I-20를 자체발급해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최 아브라함 총장은 "서류를 넣고 이민국에서 실사를 하기까지 1년 만에 발급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UCS신학대학교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비전을 품어 실천하는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이 학교는 선교부 산하의 비영리 선교단체인 조은아침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선교회는 매주 토요일 LA코리아타운(아이플로+샌마리노)의 서울국제공원 노인상조회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 일일 근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봉사활동을 거친 학생들은 봉



최 아브라함 총장과 김 에스더 학장

사 크래딧을 받아 수업의 연장으로서,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시에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생 고정인원은 20여명이고, 주로 이 학교 신학생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다. 선교회는 연말에 봉사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은아침선교회는 지금은 주정부가 홈리스를 돕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 못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홈리스들을 섬겨왔다. 김 에스더 학장은 "처음에는 이들을 봉사한다고 해서 나섰는데, 돕다보면 봉사자들이 도리어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았다. 봉사자들에게 좋은 일이 되고 보람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UCS 주소: 1543 W. Olympic Bl, #317, LA, CA 90015

▷문의:(213) 598-3146

토마스 맹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극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마드윈)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신입생 (편입생) 학생모집

정식 BPPE인가

I-20 유학생

★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SEVIS I - 20 자체 발행

본 대학은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인준된 학교이며 졸업후 고시합격자에 한하여 목사 안수를 받을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많은 장학금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본교는 Quarter로 수업하므로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상담안내 : 한국어 213-598-3146 / English 213-388-5992

1543 W. Olympic Blvd, Suite 317, Los Angeles, CA 90015 / U.S.A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미래를 위한 준비



최사무엘 목사
만남의교회

갈수록 실버목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대형교회의 수는 줄고 중형교회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시대 자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은퇴형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사회에 출현함과 동시에 교회에도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물론 이민목회가 한국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해도 시대적 영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긴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다가올 미래 교회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남가주에서도 벌써부터 청소년 교육목회(Youth Ministry)나 영어목회(English Ministry) 만큼이나 실버 목회(Silver Ministry) 혹은 섯세 미니스트리(Sunset Ministry)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암 조기진단 기술도 진화해 인간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인 여성 수명은 84세, 남성은 77세로 늘어난 상태다.

예수가 되면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던 시대는 이제 사라지고 90세나 돼야 '구순잔치' 한번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내다보고 장수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과부들과 실버세대들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나아가 재정적 후원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필자 역시 만남의교회의 미래 2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는 바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회에서 추진하는 '만장'도 중요하다.

아울러 '만남협동조합', '만남복지상조회', '만남실버기금' 등도 하루 빨리 조성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교회 지경을 넓혀 노인 아파트나 실버복지관 등 시설도 건축하고 싶은 바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나도 이제 늙어가나 보다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변하지 않는 고민은 인간이 가진 문제다. 만약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나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우리의 자녀만큼이나 부모세대들도 소중하게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결론을 하나 더 말하자면, 인생의 노후와 경험이 풍부한 65세의 나이에 은퇴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세속화된 시대가 만들어 놓은 '조기 은퇴문화'는 30년이 지난 지금 별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미래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6)

예수를 믿고 새사람으로 살아가자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심령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함을 말한다. 개혁은 그동안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있는 돌과 이물질들을 가려내고 거름과 흙을 섞어 토양을 기름지게 한 후 씨를 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어줄 수 없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옛사람의 모습 중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와 영적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롬 6:6, 엡 4:22-24)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생물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됐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거짓말이 시작된 시기다 바로 이때부터다.

성경은 진리 위에 서지 못할 때 거

짓을 말한다 고 기록돼 있다(요 8:44).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했다.

바울이 말한 옛사람의 모습은 아담의 속성 안에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위장된 삶이며, 창조자의 형상을 좇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따라 사는 삶이다.

거짓은 마귀(사단)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 버렸다.

즉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로 바뀐 것이다. 말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은 사단으로부터 마음이 미혹당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진리를 말해야 할 것이다.

아담의 후손 모두는 사단의 품 안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진리대로 살기 보다는 비진리로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생활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다.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단의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한다. 그리고 습관적인 거짓말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는 법정에 나와 하는 말이 그때의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다음 3가지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첫째는 사업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손해보고 판다"고 하는 말, 둘째는 나이 많은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말, 셋째는 노처녀가 "나는 결혼 안 한다"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은 농일지라도 계속하게 되면 사단이 어느 순간 들어와 자신을 미혹하게 한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계 21:27)

글=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hokmahcollege.com) 학장 역임
엘에이살롬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폴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호크마신학대학교 영성신학박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Can you go to work today?
오늘 일하러 갈 수 있나요?
>No, I can't go to work today.
아니요. 오늘은 일하러 못 갈 거 같네요.
>Please call your boss and tell him that you are sick.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프다고 하세요.
>Yes, I will call, but I have to call my doctor, too.
네, 할려구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야 해요.
>That's a good idea. You must see the doctor.
좋은 생각이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꼭 가 보세요.
>Thank you for your advice. See you later.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따 봅시다.

English (중급 영어)

Andrew brought his brother to Jesus. And when Jesus saw him, he said,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This name can be translated as "Peter." The next day Jesus decided to go to Galilee. There he met Phillip, who was from Bethsaida, the hometown of Andrew and Peter. Jesus said to Phillip, "Come with me."

앤드류는 그의 형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보았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베드로'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날 예수는 갈릴리로 가려고 결심하셨다. 거기서 그는 벳새다에서 온 빌립을 만났다. 그곳은 앤드류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다. 예수는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English (고급 영어)

It really matters who is elec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President of Korea because they determine the future of thei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someone says that it doesn't really matter who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President of Korea because the fortune turns out the same regardless of who is in charge.

미국의 대통령 또는 한국의 대통령에 누가 선택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이들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 되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행운은 누가 책임자가 되든 똑같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과학은 신을 추방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신과 만나”

과학의 영성 탐구기 「신의 흔적을 찾아서」

‘진화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오히려 과학계에서는 신(神)과 영성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신의 흔적을 찾아서(Fingerprints of God·김영사)>는 이러한 ‘첨단 과학’의 성과를 언론인의 시각에서 종합 정리한 저작이다.

사실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조차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이는 ‘과학’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 과학기술에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원인과 결과를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이는 해당 내용이 ‘과학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현대 과학 수준으로는 이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우상은 거침없이 ‘과학적’일 필요가 없는 영역까지 침범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단 ‘창조-진화’ 논란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영적 경험’을 놓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해 왔다.

이 ‘주류’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직감, 예감, 기도의 힘 같은 것을 우연이라 폄하하는 것 외에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 저자



과학자들은 ‘신’과 ‘영성’을, 신학자들은 ‘진화’를 연구하는 세상이 됐다.

는 “그들이 이러한 일상적 현상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론을 내놓는다면, 다른 해석을 찾으려 애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책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이제 전인미답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저자는 유전학과 뇌과학, 신경정신학과 화학 등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사실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론도 주의 깊게 청취한다. 특히 뇌파 측정기와 뇌 스캐너 등을 통해, 사람들

에게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순간 특정 뇌 영역이 공통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대조군·통제군 등을 활용해 ‘중보기도의 능력’을 실험하고, ‘유체이탈의 순간’에 대비해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다.

이는 ‘과학’의 반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의 반격이기도 하다. ‘신’의 입장에서 애초부터 다 존재해 왔던 것을, 과학이 이제서야 발견해냈을 뿐 아니겠는가. 신에게는 현대 과학, 특

히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마치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낀 채 “보이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애송이들’로 보일 수도 있겠다. 저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과학은 당신과 내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고 신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몸의 유전자 언어, 우리 몸이 보이는 화학 반응, 우리 뇌의 신경회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숨씨다.”

하지만 연구는 쉽지 않다.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서”가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금단의 프로젝트’에 선뜻 비용을 대줄 곳이 많지 않다고 여러 차례 서술하고 있다. 종교계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책의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 승려나 프란치스코회 수녀 등 영성에 일가견이 있는 집단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기도의 힘을 유독 강조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도에서 복음주의로 ‘회심’했지만, 내용은 언론인답게 ‘팩트’만을 다루면서 비종교인들도 책으로 이끌어간다.

저자는 “책의 첫 글자를 쓰기도 전에 ‘신이 존재한다거나,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산다거나, 우주가 지적이고 포용하는 곳이라는 걸 절대로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까마귀가 모두 검은다는 법칙을 깨기 위해 흰 까마귀 단 한 마리만이 필요하듯’, 입사체험이나 유체

이탈, 신 경험(성령 체험) 등의 사례들을 펼쳐놓으면서 이를 어느 정도 확증해내고 있다.

“과학이 아무리 신을 추방하려고 애써도, 신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영적인 순간에 신과 끊임없이 마주치기 때문이다. 나는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자는 이러한 영역에 도전하는 ‘게릴라 과학자들’이 옳은지는 곧 판명이 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과학이 진보하면서, 순수하게 유물론적 패러다임이 풍미하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과학은 영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 젖혀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는 저자만의 결론이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영성을 알고자 하는 ‘신비주의자들’과 신앙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결론이다.

“물질만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고, 이러한 증거들은 명상, 기도의 작용, 입사체험 같은 보다 혁신적 연구들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례적인 현상들’이 축적되면서 유물론을 둘러싼 땀에 압력이 가해지고, 그 땀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풍수나 토정비결보다도 홀대와 견제를 받고 있는 ‘영성’과 ‘신’에 대한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연 저자의 예측대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운통 신의 지문 투성이(fingerprints of God)”라는 저자는 두 가지 성경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시 139:13-14).”



「신의 흔적을 찾아서」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필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매직 스테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교황 “전쟁은 전쟁 불러온다” 시리아 사태 우려

양측 협상 촉구하고 ‘금식 기도의 날’ 선포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 1일 주일 미사에서 시리아의 화학 무기 사용을 비난하면서, 내전의 종식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9월 7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주일 미사를 접전하기 위해 성베드로성당 광장에 모습을 나타낸 프란치스코는, 전통적인 주제가 아니라 현 시리아 사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시리아에 대해 군사 공격을 고려 중인 미국과 프랑스를 염두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내전의 양측 모두 무기를 내려 놓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협상을 위한 길로 용기있게 나아오라”고 촉구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러나 시리아 정부가 화학 무기를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교황 프란치스코 1세

그는 “가장 강력한 단호함으로, 화학 무기 사용을 비판한다. 최근 화학 무기 사용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사신이 나의 마음을 불태웠다. 하느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전쟁은 전쟁을, 폭력은 폭력을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번 미사에 다른 기독교인들, 가톨릭 신자들,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과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평화의 선물을 언급하면서, “세상은 평화와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평화의 움직임을 보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날 철야기도는 오후 7시부터 새벽까지 진행됐다.

크리스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



제이스 송 교장
NCA 기독교대안학교

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자신 및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규칙과 법을 지켜야하며 자기 마음대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 앞에서 어느날은 15마일로 운전하고, 또 어느날은 같은 구역에서 100마

성경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요즘은 훔치는 행동에 대해 종전보다 비교적 관대히 여기며, 특히 십대가 이런 일을 저지를 경우 거의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데니스 프레이저란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수년 전 클리브랜드 지역에 소재한 한 공립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강연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경찰에 잡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다수가 손을 들었다고 한다. 이 학교는 중산층이상 다민족 학생이 다니는 학교였기에 특정 인종그룹(예: 흑인 내지 남미인)이나 저소득층 학생들만의 반응이 아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광경을 담고자 카메라 녹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답대하 손을 들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학생들에게 왜 물건을 훔치겠다고 물어봤다. 그들은 자신이 훔치는 물건 때문에 대형백화점이 손해보지 않을 것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 참고로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백화점 및 전국 체인점에서 직원과 손님의 "슬쩍"때문에 손해보는 액수가 약 31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숫자는 전체 판매액에 2%나 되는 거액이다. 월마트나 베스트바이 같은 업체들이 310억 달러의 손해를 그쳐 적자모란 계산하고 있을까? 아니면 업체들이 이 액수를 그대로 물건값에 추가해 무죄한 일반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누군가의 도둑질은 그저 남의 문제가 아니며,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로 손실임이 분명하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문제를 공립학교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인성교육에서 손을 뗀 공립학교 교육의 결과는 당연히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많겠지만 프레이저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사실 공립학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고 사회가치(social value)만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야함과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 그리고 흡연 중단을 위한 메시지는 공립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윤리, 나아가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선 아예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 공립학교의 현주소다. 특별히 "political correctness"란 구호 아래 옳지만 남을 자극하고 불편케 하는 표현은 절대하지는 의도가, 지금은 윤리나 도덕성에 대해선 아예 말하지 말자는 선까지 가버렸다.

요즘 '뜨거운 감자(hot potato)'로 등장한 동성애 교육(필수교육, 교재에 포함, 교사의 커밍아웃 등)이 바로 이런 백락의 문제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일반 가정과 동등하게 여겨야 하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극보수자 내지 광신자로 취급한다. 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며, 가치나 도덕성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치와 도덕성은 그렇게 가벼우

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자신 및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규칙과 법을 지켜야하며 자기 마음대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 앞에서 어느날은 15마일로 운전하고, 또 어느날은 같은 구역에서 100마

로) 운전할 수 없다. 규칙이란 사회적 질서와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성(性) 같은 기본적인 삶의 요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리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이다. 동성연애를 거부하는 것은 그저 고리타분한 기독교교리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개인의 윤리, 도덕,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에 대해 부모가 가르쳐야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일찍이 자녀에게 정직의 모델을 보여주고 거짓과 위선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 즉 아이로 하여금 거짓과 도둑질(?)에 참여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디즈니랜드 입장비를 절약하기 위해 아이에게 나이를 속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에게 속이고 훔치더라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을 남기게 된다.

맥도날드에서 잔돈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야! 공돈 생겼다!'라고 기뻐하면 안된다. 그런 모델을 본 아이가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고, 가게에서 사탕을 슬쩍 훔치기도 하며, 학교에서 친구의 물건을 "슬쩍"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부모가 반응하고 가르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세상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에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할 일이 터진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 교육을 맡겨보는 것도 고려해보자. 특별히 학교를 옮겨보고자 하는 부모는 '학군'만 따지지 말고 공부도 잘 가르치고 인성교육도 실천하는 학교를 찾아보길 권한다. 정말 질 높고 가치있는 교육을 자녀에게 마련해주고 싶다면 기독교사립학교들을 꼭 방문해보길 권한다.

끝으로 학교 외에 교회나 종교단체의 인성, 영성교육 프로그램에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겠다. 단기선교여행, 리더쉽 훈련, YWAM 같은 선교단체의 DTS 및 Infusion 등 좋은 임팩트를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고 참여시켜 보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며, 공립학교나 일주일에 한두번 참석하는 주일학교에서 도덕과 윤리교육을 담당할 것이라는 망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도덕, 윤리, 무척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단어같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하루 수백번씩 내리는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사회가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정말 난세(anarchy)를 곧 접하게 될 것이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도덕과 윤리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공부, 학점, 대학진학 다 좋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 추구하다간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차세대리더로 키우지 못할 것이다.

건강 칼럼

유전자와 영양소와 치매(2)

치매는 사고력,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있는 퇴화성 신경병으로, 인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가장 악독한 질병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인간의 뇌가 위대하기 때문인데, 치매라는 병에 걸리면 인간의 뇌는 파리의 뇌보다도 못한 것이 된다. 우리의 몸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중 뇌의 신경세포는 약 100억개 정도 있다. 그리고 뇌신경세포는 하루에 10만개 정도가 자연적으로 죽는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약 10%의 뇌신경세포가 사라진다.

치매는 뇌혈관문제로 생기는 뇌혈관성 치매와 뇌신경문제로 생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다. 알츠하이머치매는 뇌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이상단백질이 생기는 현상을 보인다. 이밖의 원인으로 생기는 치매에는 뇌출혈성치매, 타박상치매, 뇌종양치매, 저산소증치매, 파킨슨치매, 에이즈치매, 알콜성치매, 약물성치매 등이 있다. 80세가 넘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반이

보가 있는데 이러한 많은 지뢰밭을 지나 오면서 80세가 넘어서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무척 부러운 행운과 유전자 자를 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치매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요인은 70% 정도로 환경적 요인보다 훨씬 높으며, 치매에 관련된 유전자는 APLP2, ACHE, AGPS, MAPT, APOE 등 여럿이 있는데, 이중에서 APOE 유전자의 산물은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키는 지방단백질의 일종이며, 이 물질과 치매에서 나타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의 집합과 분산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 APOE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은 2배 가까이 된다.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영양소로는 코엔자임큐, 엽산, 피코노제놀, 인플린, 카르니틴, 애시와간다(인도의학 아올비다약초), 포도씨, 강황, 은행(ginkgo biloba) 등을 추천한다.

다나병원 정평수 원장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 어린이부 오전 11:00 |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Youth예배 오전 11:00 |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 2부예배 오전 10:30 | 오전 6:00(토) | 3부예배 오후 12:45 | 유초등부 오후 12:30 |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전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 새벽 오전 5:30 (화-토) |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 성인 EM예배 오후 2:00 | 2부예배 오전 9:30 |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 3부예배 오전 11:00 | 찬양예배 오후 3:30 | 4부예배 오후 12:30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 3119 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 EM예배 오전 11:30 | 2부예배 오전 9:30 |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 3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0:00 | 2부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 대학부 오후 1:00 | 2부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저녁 7:30(목) | 유초등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6:00(토) | 중고등부 오전 10:45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 금요일예배 오후 7:3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 성경공부 오후 7:30(화) | 2부 오전 6:30 (화-금) | 오전 10:30(수) |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 주일학교 오후 1:00 | 2부예배 오후 12: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 금요일예배 오후 8:00 | 청년부-주일 오후 1:30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ia.net

주일예배 오전 11:00 | 금요일예배 오후 7:3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은 선도가 성경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하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 수요일예배 오후 7:00 |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주일 EM예배 오전 9:30 | 토 오전 6:00

최은형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17,27,37,47주수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를포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구없이인문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 미트 댕) T.(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너렛 전방)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상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 영아예배 오전 10: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일예배 오후 7:30 | 3부예배 오후 1:30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6:00 | EM예배 오후 2:00 | 2부예배 오전 9:50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25 | 3부예배 오후 12:00 | 토요일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9:00 | 금요일예배 오후 7:3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2부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초, 친, 초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 3부예배 오후 1:00 | 2부예배 오전 10:30 | 수요일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 영아예배 오전 10: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일예배 오후 7:30 | 3부예배 오전 12:45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교회, 성경적코노이아, 만민예사중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2부 오전 6:30(토)

김기성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애기가 사랑이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11:00 | 금요일예배 오후 7:30 | 2부예배 오후 2:00 |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키우고 인간이될수있도록, 인간이될수있도록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 EM예배 오후 2: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 젊은이 예배 오후 2:22 | 오전 6:20(토)

김기성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개혁의 시작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헌 목사, 백성영 목사
베니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경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유니/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4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말씀과 기쁨의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하시라!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잠에유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을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무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점음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EM)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힐링수업)
오후 12:00 (번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후 6:3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헬레니즘과 유대주의의 의미

1.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유대주의(Judaism) 속에서 탄생하여 헬레니즘 속에서 성장하였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모태는 유대교이다. 그러나 후에는 희랍사상을 바탕으로 그 신학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려면 유대주의와 함께 헬레니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과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일반인이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더구나 신약학자들 중에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와서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고대희랍사상 특히 고대희랍철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논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 본 다음에 헬레니즘과 유대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찰해보기로 한다.

2.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1) Hellenism은 다신론적이고 Judaism는 일신론적인가?

한국에 있을 때 당시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님이 어느 잡지에 쓰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란 제목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 분은 어느 서부극의 제목을 연상시키는 말로 그 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하셨다: "헤브라이즘은 천국으로, 헬레니즘은 지옥으로"라고 말이다. 이로써 그 분은 헤브라이즘을 찬양하고 헬레니즘은 저주한 셈인데, 그 이유는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theocentric)이고 일신론적(monothestic)인데 반하여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적(anthropocentric)이고 다신론적(polytheistic)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조금이나마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글을 읽고 필자가 특별히 안타깝게 생각한 이유는 그 분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라는 말을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이 분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글을 쓰셨는지 필자는 모른다. 그리고 그분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이 무슨 뜻으로 이 말들을 사용하셨는지 또한 알 수 없다. 요즈음에는 학자들 간에 Hebraism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거의 전부가 그 말 대신 Judaism이란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헤브라이즘과 유대주의가 같은 것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시기적으로 헤브라이즘은 바빌론 포로생활 이전의 유대교 및 유대문화와, 그리고 유대주의는 그 포로생활 이후의 유대교 및 유대문화를 뜻한다. 이러한 구별은 19세기초에 독일신학자 데 베테(De Wette; 1780-1849)에게서 비롯되었다. 유대교를 이처럼 바빌론포로를 분기점으로 헤브라이즘과 유대주의로 나눌 경우 전자의 창시자는 모세이고, 후자의 창시자는 에사라라고 흔히 말해진다. 헤브라이즘이건 유대주의이건 엄밀한 의미에서의 창시자는 하나님이고 모세와 에사라는 하나님의 종들 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헬레니즘이 인본주의이고 다신론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대희랍은 여러 개의 폴리스(πόλις; polis)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폴리스를 흔히 도시국가(city state)라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그리 적합한 것은 아니다. 폴리스 하나 하나가 주권을 갖춘 국가이긴 하지만 규모가 도시처럼 작다고 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들이 대형화되어 희랍전체 인구보다 많은 도시들도 있어 요즈음 같으면 차라리 "마을국가(village state)"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폴리스들의 가장 큰 특색은 그것들이 종교적인 공동체(religious community)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국가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었다. 희랍본토가 비좁고 척박한 곳이 많아 주전 7-5세기엔 많은 고대희랍인들이 지중해연안 여러 곳으로 이민을 가서 폴리스를 세웠는데, 그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은 신전, 그리고 학교와 체육관(체육을 위한 김나지움(gymnasium))의 순서였다. 그리고 크고 작고 간에 그리고 공사 간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5세기 후반에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인본주의가 젊은이들 사이에 침투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에 국한하였다. 따라서 헬레니즘을 인본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고대사회가 종교적이었던 사실, 다시 말해 신본주의였다



서승원 목사

는 사실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이나 희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고대 국가에 공통적인 특징이다. 다시 말해 종교와 사회 또는 종교와 국가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몰트만의 말을 빌리면 "신들이 없는 국가도 없고 국가 없는 신들도 없었다."(There were no godless states, no stateless gods.)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고대사회나 민족이 신본주의인가 아닌가는 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신관을 가졌으며, 그 신관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행동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당시 모든 이방국들이 그랬듯이 희랍의 경우 민간인들은 소위 올림포스의 신들이 주축이 된 다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5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피스트들을 비롯해서 지식인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신들을 거의 믿지 않았다. 철학자들의 경우 특히 후세에 그리고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철학자들의 경우 그들의 신관은 다신론이라기보다는 일신론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헬레니즘을 어떤 시대나 학파 간의 구별 없이 다신론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사람 또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항상 신본주의이고 일신론적이었는가? 우선 그들이 항상 일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를 고찰해보자. 물론 구약성경은 야훼 한 분만이 유일할 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야훼만을 신으로 모신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백성에게 있어서의 일신론신적 신앙은 상당히 후대에 이르러 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선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 부인들이 이방 신들의 상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절을 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방 신들을 섬긴 것 등은 그만두고라도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40 일 간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출애굽 한 뒤에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긴 사실을 말해준다. 이들은 흥희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을 가르친 후에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와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각 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수24:14에서 말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그때까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약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것은 그 때까지 이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24:31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와 같은 말이 사2:7 절에도 나온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2:10-11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되어 있다. 그 이후의 사사기는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 압제가 심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주시던 열마 안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긴 사실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은 사사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왕국이 세워진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 후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방 유다가 바빌론에 망한 것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망한 후에 열왕기하 저자는 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음과 같이 적고 있다(17:7-12):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의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한 뒤로는 오직 아웨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고대히랍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시대의 유대사(Hellenistic Jewish History)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유대인 학자 비커만(Bickerman)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육의 목적으로 포로생활에 간혀있었으며, 이 경험은 주님의 경배자들로 하여금 이방종교의 간음을 영원히 버리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견해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빌론포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아웨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프라테스 상류에서 1932년에 발굴된 주후 약 3 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두라 에우로포스(Dura Europos)의 회당의 마루바다에는 이방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벽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도 인근의 회당에서 볼 수 있는 신화적 인물들과 유사하게 그려져 있음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 회당이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예외에 속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본토에 세워진 회당들에서도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황도대(zodiac)와 호머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장면의 묘사까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겼음을 암시해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스라엘 본토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웨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본토밖에 세워졌던 다른 성전들의 발굴에서도 나타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귀신숭배(demon worship)와 마술이 이스라엘백성들 중에 크게 성행했다는 사실이다.

[IT 칼럼]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얼마전 집안에 원하지 않던 일이 생겨 범람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장으로 추측되는 여자 분이 열심히 얘기를 듣더니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이에 제가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고 답하자 "잠시만요" 하고는 누군가와 상의를 하더니 "우리는 그런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고 잘라 말하곤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업소록에도 분명 그러한 일을 한다고 나와있고 잘 아는 목사님이 추천해 준 이웃교회 장로님에게 전화한 것인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일은,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분에게 털어놓자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돈을 위해서 라고?' 물론 혹자는 그게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만일 그분이 정말이지 먼저 위로를 하면서 아주 짧게라도 상담을 해주셨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에서 일어난 '선물달기 운동'이 이곳에서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가 접했던 수많은 악플에 대한 안타까운 반응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들을 보면서 왜 인간은 이리도 악한가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선물이 많은 이들에게 삶의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도합니다. 필자의 블로그에도 가끔 선물이 달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라며, 유용한 어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및 찬송의 경우, 저는 '미가엘 성경'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10불 상당인데, 성경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 아주 마음에 드는 어플입니다. 이 기능은 2배까지 속도 조절도 가능하므로 같이 읽거나 들으면서 통독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2배속으로 해놓고 통독하면 2시간에 창세기 전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약보다 들어있는 등 비교적 사용하기 간단한 어플입니다. 물론 무료로 제공되는 어플도 있습니다. '바이블25'라는 것으로 성경과 찬송은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읽기도 제공되는데, 속도조

절 기능은 없습니다. 무료치고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다운받으시지는 물론 아시겠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플레이스토어' 혹은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의 검색창에 '바이블25'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연관된 어플들이 여러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네비게이션은 수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개중 'Waze'라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이 어플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자신이 본 상황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등록하므로 타인이 그 위치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교통위반 딱지를 줄일 수도 있지만 그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아님을 아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비게이션을 잠깐 사용하면 자신이 예약한 데이터 사용량을 넘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비게이션을 세팅할 때 목적지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옵니다. 이때 데이터의 양은 몇십 킬로바이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와 GPS에서 읽혀지는 현재 위치를 비교해서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뉴욕을 간다고 해도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기에 그 양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이 배터리를 계속 소모하므로 네비게이션을 동작시킬 때는 차 안에서 차량용 충전기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시 스마트폰에만 의지하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 새로 목적지를 설정하려 한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서 네비게이션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스마트폰이 작동되는 곳(전화 가능한 곳에서) 재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내 운동기록'이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하이킹이나 조깅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내가 운동한 거리는 물론 지도를 포함한 코스, 고도까지 자세히 표시해 주며, 이를 기록하게 되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어플입니다. 이밖에도 계속해서 좋은 어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플에 대해 블로그(http://blog.naver.com/joshua7231)에서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글=남가주침례교회 윤승준 안수집사

O.C./앨버틴 지역

가나안장로교회, 감사한인교회,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송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한중수 담임목사, 엘버틴침례교회, 김삼도 목사, 엘버틴 할렐루야교회, 영광빛복음교회, 은혜한인교회, 작은자교회, 김철민 장로, 김철민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LADWP, 한인커뮤니티 대상 정부 에너지정책·혜택 관련 세미나 연다

오는 7일 LA기쁨의교회서 LADWP(LA시수도전력국, Ms. Leslie Mckay-Martin-Senior Manager)가 주관하는 오바마 정부 에너지정책과 혜택에 대한 세미나가 오는 7일(토) 오후3시 LA기쁨의교회(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서 열린다.

너지 정책과 누릴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될 예정이며, 한인단체와 한인 언론사 관계자 및 파트너 회사들을 초청해 열린다. 이날 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며, 모임 후 간단한 다과가 준비된다. LADWP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앰그린솔루션(AmGreen Solutions)이 협력하게 된다. 행사 당일 주차는 잉그라함 스트리트(Ingraham St)에서 가능하다. >문의: (213) 388-5652, (213) 434-2834 (테드 서)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을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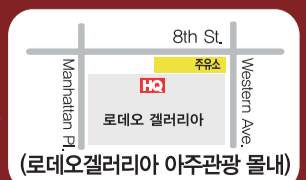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컸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이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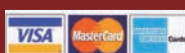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워키토키 유럽」 저자들과 떠나는 유럽 여행(3): 영국 교회 방문기

영국 성공회 예배 현장에서 찾은, 유럽 교회의 현실

변호사(황경태)와 농부(홍윤선), CEO(추광재)와 사회학도(최규동) 등 네 명의 크리스천 남성 청년들이 유럽 곳곳을 탐방하며 '살아있는 공동체 영성'을 찾아나선 여행기, 「워키토키 유럽(Walkie Talkie Europe: 이담복스)」의 저자들이 신앙의 '본류'를 찾아 떠났던 그 소중한 경험을 본지에 열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번에는 황경태 변호사의 '영국 교회를 찾아서'입니다.

해외여행을 상상하면 제일 처음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야자나무? 혹은 일간지 여행면에서 자주 보이는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베니스 운하의 낭만적인 풍경인가요? 물론 여행에는 그런 달콤한 맛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무도 찾아갈 친구 없는 타지에 홀로 머무르다 보면 그런 씁쓸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밝고 따사로운 햇살이 창을 비추던 5월의 런던,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갑작스레 밀려오는 하전함과 고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자각', 그 어떤 인생의 재미나 즐거움, 예를 들면 출렁이는 템스강과 웨스터민스터 사원, 빅벤(Big Ben)이 주었던 실렌 속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제가 찾은 곳은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안에 있던 한 체펠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만난 한 신부님과 대화를 통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미사에 찾아온 한 이방인을 다정하게 맞아주며 자신을 'Father Joe'라 부르라 했던 그 호의보다, 누군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 단어 속에는 '신뢰와 의탁'하는 마음이 동반한다는 것을 저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뿌리, 혹은 기원', 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절대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이를 감싸 안으시는 근원적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 속에, 저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 유럽이라는 미지를 탐험하는 출발과 기초가 되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뿌리와 기초의 측면에서 저 개인 뿐 아니라 영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기

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고 광산 및 묘지에서 설교하면서 영국 전역을 들쭉였던 존 웨슬리를 비롯해 조지 화이트 필드, 찰스 스웰전 등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활약했던 나라! 뿐만 아니라 노예무역선 선장에서 회심한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 평생 노예무역 폐지와 정치개혁에 헌신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와 그의 공동체인 클레팸이 세속 사회를 변혁시킨 역사를 가진 영국. 저는 이런 탁월한 역사를 자랑했던 영국 교회의 발자취를 찾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날 시내 중심에 있는 영국성공회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시내 중심부인 옥스포드 서커스(Oxford Circus) 근처 성 제임스 교회(St. James Church of England) 주일예배에는 관광객을 포함한 대략 40-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럽의 어느 교회가 그렇듯 크고 웅장한 내부와, 가톨릭과 유사하게 잘 갖추어진 예배형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익숙지 않아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예배 과정에서 전원이 둘러 서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인상에 남았습니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훈훈함이 감돌았고, 낯선 방문자를 따뜻한 인사로 맞아주었습니다.

보통 예배 후에는 다과를 나누며 서서 대화를 하곤 하는 것이 영국의 풍습인데, 저와 같이 간헐은 차를 마시며 교인들과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중에 동성애자를 위한 모임을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교회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교인들에게 맘마미아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라는 주제는 사실 아직은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주제였기에 교회에서 이를 위한 모임을 한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목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일까? 교회의 입장은 그에 대해 찬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이 궁금했지요. 그래서 예배 후 이에 관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명쾌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대답을 하는 것을 꺼리

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국 교회 목사 중에서는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더군요. '아니, 성경에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되물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도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으로 믿지는 않는 것이지요.

더구나 건물 보수 기금 마련을 위해 맘마미아라는 공연의 티켓을 판다는 점도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뮤지컬이 나쁘다거나 교인들은 그것을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던 힘 있는 교회는 사라지고 이제 세상 문화의 힘을 빌려 겨우 연명하고 있는, 다 쓰러져 가는 영국 교회의 모습밖에 없었다는 증언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영국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선 언약 공동체의 힘차고 선명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사회를 변화시켰던 교회의 능력 있는 발자취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짧은 경험을 통해 영국 교회, 아니 유럽 교회는 신앙의 출발점, 기초와 뿌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면 너무 성급한 것일까요? 하지만 유럽 사회가 합리적 무신론의 사회가 되었고, 교회는 그 속에서 힘이 빠진 채 하나 둘씩 건물들이 팔려나가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인으로 나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세상과 싸워야 할 존재로 규정하는 그 기초를 버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만 좋은 집과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사회적 지위 등 내가 살고 싶

어하는 방식대로의 삶을 부인하고 제자로서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럽교회가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여 믿고 순종해야 할 아버지와 그의 말씀인 성경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닐까요? 만일 영국교회가 이렇다면, 이를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 주는 그저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순종하고 따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만약 우리 또한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속적 조건들에 만족하고 살며 이 땅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어느 순간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성당 앞에서 있는 필자



런던 중심 옥스포드 서커스 근처 성 제임스 교회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이재영 학교운영책임자
LA사랑의교회 공립
대안고등학교

미국내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동성에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반기독교 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보장되지 않는 기대보다 이제 교회가 적극 나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新개념 대안학교'를 설립해 성공리에 운영 중인 교육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한다. 다음은 LA사랑의교회 청소년 공립 대안고등학교 이재영 학교운영책임자의 글이다. <편집자 주>

학생이 없는 첫해, 첫날, 첫 시간

개교를 준비하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성큼 다가온 개학일. 시행착오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학교를 오픈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깨닫게 된 첫째, 첫날, 첫 시간. 학교의 구성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학생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첫날부터 구름 때와 같이 밀려오리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몇 명은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화를 자초했다. 나름대로 광고도 잘하고 커뮤니티에 잘 알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그 황당함이 엇그제 같은 일인데 벌써 2008년 2월의 일이다. 그러나 그 무모하고 약간의 무식한 시작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열매도 없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타나기까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교사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교육국에서는 연일 이메일과 전화가 빗발쳤다. 결국 교육국에서 우리 학교에 담당자를 아예 보내놓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모집과 운영은 운영자의 책임이기에 학교를 오픈한다고 자동으로 학생들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일단 누구라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 선교단체나 비영리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받기로 했다. 또한, 우리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학교도 방문하기로 했다. 정작 개교 전에 해야 하는 타 단체와 학교들과의 Collaboration은 뒷전이었고 쌓여 있는 학교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일에 치여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 후회해서 무었하랴.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청소년 대안학교 종류

교육국에서 소개해 준 몇 곳의 학교와 전문 재활센터,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 학교도 방문하면서 참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함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부러웠던 것은 방문한 곳 모두 소수민족들이 운영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시설들이었는데 입학부터 졸업 그리고 직업훈련과 대학진학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장 큰 라티노 커뮤니티의 대안학교와 직업훈련소들은 나름대로 규모나 노하우 그리고 성공률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또 한 곳은 미혼모들이나 청소년 시기에 아이를 가진 부부들만을 위한 학교였는데 이곳은 청소년기에 아이를 출산한 학생들이 육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운영해 주고 있었다. 단지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육아 정보와 상담 그리고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는 일까지 대안학교에서 전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행해 주고 있었다. 또한 한 곳은 청소년 재소자 중에 모범수들을 모아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학교였다. 아무래도 수강자들이 있는 학교여서 감독과 같은 제한적인 시설이었지만 여기서 만난 아이들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청소년들이었다. 여기에 도서실이 하나 있는데 이곳의 도서실을 한인 교회에서 전액 후원하여 리모델링 해 주고 매달 정기적으로 책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여러 형태의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청소년들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지만, 우리 학교가 모델로 삼은 학교는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도록 인턴십을 제공하는 대안 학교였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비즈니스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모의 인터뷰 카운슬링과 이력서 작성법 그리고 가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과 필요한 양복까지(여자학생들은 드레스)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의 모델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모든 서비스가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들과 정부의 보조를 받아 정말 분업이 잘된 공장처럼 돌아간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한인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사회 생활의 첫 발걸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대학을 가기 전 여러 경로의 일을 도전해서 인턴십을 거쳐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 Freshman Year 첫해를 휴학하고 선교 현장이나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다양한 일을 접해 보는 것도 권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 분야가 적성에 맞거나 관심이 생기면 그 분야를 선택해서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긴 타임라인을 볼 때 4년제 대학에 비

록 바로 입학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해 준다면 짧은 인생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획일화된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 자라나 대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이루는 것은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머리가 굳기 전에 사고가 깊어지기 전에 얼마큼 다양한 경험과 세상을 접하느냐가 그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비교적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많은 학생이 전통적인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절대 좌절하거나 인생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 실패의 원인이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 때문이든지 말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라도 자녀가 전통적인 학교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없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정보 부재로 인한 자녀들의 시간낭비

지난 5년간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실 부모들의 입장과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자녀들과의 실랑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라도 졸업하려고 애쓰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한인 가정의 상황으로 좀 더 좁혀보면, 정보의 부재로 인해, 아니면 자녀를 너무 믿는 나머지 그냥 방치 수준으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중 가장 많은 한인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자녀들을 Adult School이나 Community College에서 하는 Extension 프로그램, 또는 Independent Study 개인학습 수업에 보내거나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정보의 부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옵션이 그리 많지는 않다. 만 18세가 넘으면 전통적인 공립 고등학교는 그 해에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비 문제로 인해 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의 선택은 더욱 줄어든다. 그리고 학교에서

몇가지 옵션을 주는데 그것이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Extension 고등학교 졸업장 프로그램이나 Community Colleg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학생 스스로 공부해서 Credit을 따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있지만,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본인이 다 공부했다고 싶을 때 Chapter Test를 거쳐 Pass 하면 그 Unit에 대해서 점수를 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고등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영어가 부족해서, 또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Curriculum Teaching 없이 스스로 공부하여 점수를 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Adult School이나 Extension Program을 수년간 다녀도 학업 진도가 지지부진하거나 실제로 시간만 허비하는 일들이 다반사이다.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교사의 가르침과 동기부여가 결부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원점에서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부모와 학생 모두, 학교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한 분석과 상담 그리고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줄이려면

많은 교회가 학교 운영에 관심이 많다. 한글학교라는 전통적인 2세 뿌리 교육에서부터 유치원과 애프터스쿨, 좀 더 큰 정규학교로는 기독교사립학교나 우리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미 학교를 운영 중에 있거나 학교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나 교회가 있다. 바로 타민족들과 또는 다른 단체들과의 연계 협력 즉 Collaboration이다. 교회가 학교 운영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자라면서 더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연계 협력(Collaboration)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많은 한인 교회들에게서 우리 학교의 모델을 보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런데 80%이상은 학교를 하려는 이유가 교회가 주중에 비는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다가 학교가 이상적일 것 같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발전에서 사실 건물이 주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기에 학교 운영은 매우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이나 단체는 학교 건물을 찾을 수 없기에 학교 운영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짧은 5년의 경험에서 배운 것은 학교 운영의 승패는 건물이나 시설보다는 얼마만큼 다른 단체나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이루고 발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신입생들 중 40% 정도는 타 단체나 기관 또는 일반 고등학교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 학교를 소개해 주어서 오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비영리단체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A지역의 여러 고등학교의 카운슬러들을 만나고 혹은 그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해 주도록 알리고 설명하는 일, 타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만나 우리 커뮤니티에 이러한 학교와 프로그램이 있다는 일을 알리는 일, 이미 오랫동안 학교를 운영해 온 운영 책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노하우를 배우는 일은 개교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우리 교회나 단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 자체로 남아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그저 한 점일 뿐이다. 그러나 그 점이 다른 점과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상호협력되어 갈 때 우리는 그 한 점의 한계를 뛰어넘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난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전이 현실이 되어가는 일들을 우리 눈 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Collaboration, Collaboration, Collaboration!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계속>

LA사랑의교회 공립 대안고등학교
▶ 웹사이트: www.LASarang.com
▶ 학교주소: 520 S. La Fayette Park Place #453, Los Angeles CA 90057
▶ 학교전화: (213) 385-5358
▶ 한국어 상담 및 문의: (714) 720-5113/이재영 디렉터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자,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성경 쉽게 읽는 방법 바로 “여기!”

성경통독의 길잡이 **썩 난 지팡이**

성도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신년목표로 빠지지 않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통독’ 특히 평신도들에게 방대한 분량에 내용도 쉽지 않아서 성경한권을 다 읽기는 만만치 않다. LA사랑의빛선교교회 이학진 장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통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길라잡이 <썩 난 지팡이>를 펴냈다.

“지난 18년간 교회 구역예배에서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평신도들로부터 성경읽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말씀 읽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은 구약성경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뉘고,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과 예언서로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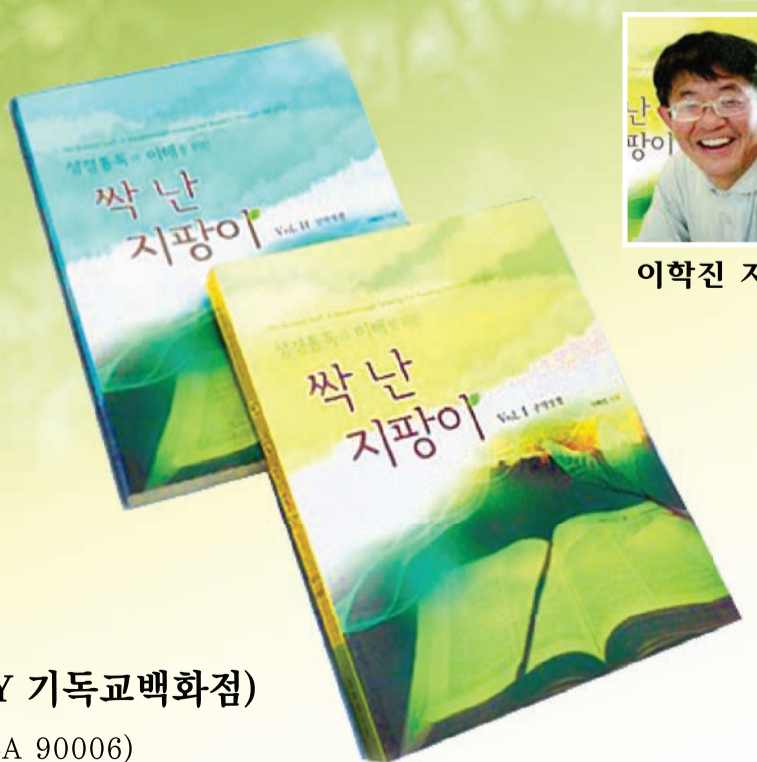
이 책은 성경을 주제와 흐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구성해 각 단락의 중요 구절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입문의:(213)434-0033(이학진 장로), (323)766-8793~5(JOY 기독교백화점)

구입처:JOY 기독교백화점(3170 W. Olympic Blvd, #E, Los Angeles, CA 90006)



이학진 지음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이야기

초기 한국 천주교회 호교문(護敎文) - 상재상서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초기 한국 천주교는 조정으로부터 사학(邪學)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됐다. 이 모습을 본 정하상(丁夏祥)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탄압을 계속하는 조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주교회를 변호하는 글을 썼다. 이 글은 천주교의 원리를 설명하며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한국인이 쓴 최초의 호교문(護敎文)으로 필자의 애절한 심정이 잘 표현돼 있다.

이 글은 정하상이 당시 천주교 박멸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던 실권자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에게 올린 서신 형식으로 된 글이다.

상재상서 대강의 내용은 이렇다. 천주교회는 결코 사교가 아니며 국가에 해가 되는 위험한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이 보유한 사상과 배치되지 않는, 백성이 믿어 좋은 종교다. 천주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박해

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글머리에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엿드려 아뢰옵건대 맹자가 처음으로 양자(楊子)와 흑자(黑子)를 사설(邪說)이라 하여 배척한 것은 그 사상이 유교학계를 함부로 해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요, 한유(韓愈)가 석가와 노자를 쳐서 물리친 것은 그 사상이 일반 인민을 미혹하여 혼란하게 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의 지성인이 법률을 세워서 금지하는 규칙을 마련할 때에 반드시 그 의의와 이치가 어떠한지, 또 해됨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땅히 금할 것은 금하였고, 금하지 아니할 것은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그것이 과연 옳은 이치에 맞으면 나무꾼의 말이라도, 성인은 반드시 채용하였으니 그것은 사람 나름으로 그 말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주의 신성한 종교를 금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 의의와 이치가 어떠한지를 묻지 아니하고 지극히 원통하고 지극히 통분한 억설로 돌려서 사형으로 처치하니…… 그 기원과 전통을 조사하여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 도리를 배우게 되면 장차 유교 학계에 해가 되겠습니까. 또는 일반 인민을 혼란하게 하겠습니까.

이 종교는 국가의 원수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응용하며 언제나 실행할 종교이오니 해가 된다

든가 혼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그는 천주(天主)의 실재(實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근거로 논증 한다. 첫째는 만유(萬有)의 조성자(造成者)가 있다. 어떤 집이 있는데, 지은 사람이 없고 저절로 오뎅 일어섰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의 말이라 할 것이다. 천지는 커다란 건축물인데, 조성자가 없고 저절로 생겼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둘째는 양심이다. 선(善)을 상(賞)주고 악(惡)을 벌(罰)하는 큰 어른이 계심이 마음 속에 있어서 어려운 때를 만나면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祈禱)한다.

셋째는 성경이다.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周)·공(孔)도 역시 경서와 사기가 있어 전래된 것 같이, 천주교 역시 경전 즉 구약과 신약이 있어 오늘날 가가호호에서 입으로 외우며 거문고로 노래한다.

하느님의 존재는 중국의 경사(經史) 가운데, 역경(易經)에 “하느님께 바치나이다”고 말했고, 시경(詩經)에는 “하느님께 아뢰나이다”고 말했으며, 서경(書經)에 “하느님께 금사(禁祀)하나이다”고 했고, 공자는 “하늘에게 죄를 얻으면 기도를 바칠 곳이 없느니라”고 말했다고 논증한다.

이어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면 집안을 정돈할 수 있고, 한 나라에서 실행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이고, 온 세계에 시

행하면 세계가 평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하상은 천주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도 다 임금의 자손이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아! 저 성교를 믿는 사람들만이 홀로 우리 임금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슬프도다. 이 인간들이 어찌하여 그다지 극도에 이르러 조금도 서로 아끼지를 않고.

옥(獄) 안에서는 지쳐서 죽어 자빠지고, 문 밖에서는 목을 베어 죽임이 연달아 끊이지 아니하여 피눈물이라도 람을 이루고,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부르고, 형은 아우를 부름이 막다른 데로 쫓긴 사람이 몸을 돌아킬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맑고 밝은 세상에 그것이 무슨 꼴입니까…… 엿드려 비옵건대 바로 이때에 밝게 비치어 굽어 보시와 도리가 참된지, 거짓인지, 그릇된지, 올바른지 자세히 판단하신 다음에, 위로는 정부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일변(一變)하여 도의로 돌아와서 금령(禁令)을 늦추어 강포 하는 법을 철회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하여 전체 국민과 더불어 제 고향에 안정하여 제 직업을 즐기면서 한가지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천 번 만 번 바라고 바랍니다. ……차라리 양반에게 죄를 얻으지 않던 천주교에게 죄를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3,400자 정도로, 황사영의

백서에 비하면(백서는 1만 3천자 정도) 짧은 글이다. 연세대 명예교수 민경배는 이 글에 대해 “그 문장의 미려(美麗)함이라든가 그 논리의 명쾌 정확으로 해서, 과연 조선 최초의 신학적 저작으로 손색이 없다. 그것은 이 책자가 1887년에 이르러 흥공의 고약망(高若望) 주교에 의해 출판 간행돼 중국 선교에서나 신학 교육에 널리 사용된 것만 봐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상재상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해석하고 잘못 인식된 점을 변증하며, 국왕의 적자로서 긍휼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따라서 황사영의 백서가 전교의 자유를 위해 외국의 물리적 힘에 호소하고 있었다면, 정하상의 상재상서는 자국 안에서 진리를 일깨움으로 조정이 스스로 박해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동쪽으로서의 애끓는 정을 담고 있다.

이처럼 한국 천주교 초기 역사에 두 교우들에 의해 기록된 문서는 전교 자유 획득에 대한 다른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황사영과는 때부의 관계에 있었던 정하상의 상재상서는 황사영의 백서와 더불어 조선인의 손으로 쓰인 초기 조선 천주교의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정하상은 1839년 기해(己亥)교난 시, 배교자의 밀고로 숨어 있던 장소에서 끌려 나와 목 베임을 당하고 순교해 기록한 피를 이 교회 역사 위에 뿌렸다.

(계속)

은혜 아니면



박모세 목사
살롬장애인선교회

입은 아내의 손발이 되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 14년간 아내와 함께 장애인 사역을 감당해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매년 8월이 되면 인간적으로는 비극적인 사고였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의 종으로 불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상기 하며 부르신 사역을 위해 재 헌신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총 26차에 걸쳐 해외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개최한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를 통해 금년에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그것도 1인당 개인 소득이 미국인의 1%에 해당되는 578달러 밖에 안되는 가난한 나라 “부르키나 파소”에 사랑의 휠체어를 보내게 되어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편, 육신적으로는 매일 경험하는 갖가지 도전과 한계에 부딪쳐 허우적 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안식년은 고사하고 적당한 휴가조차 없이 달려 온 14년간의 사역의 시간이고, 하루의 온전한 휴식도 없이 살아온 지난 24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을 바라보게 되니 체력의 한계도 느끼기 시작했고요, 여러모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루 밤만 잠을 설치도 그 다음 날 종일 영향이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을 보고도 일시적으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 이만 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노화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야겠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은퇴”라는 단어를 심도있게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개인의 인생을 단거리

가 아닌 마라톤에 비유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릴레이 경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역자들은 일정한 구간을 뛰는 경주자들입니다. 혼자서 전 코스를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코스 이상을 경주하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망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경주할 코스를 바로 이해하고 다음 주자에게 적시에 바통을 넘겨주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에게 여호수아와 엘리사 같은 후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좋은 후임자를 양성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선교단체에 있어 중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 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겠지요. 그러므로 은혜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추한 인간의 냄새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부재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기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3:1). 유혹하는 자는 마귀이지만,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약1:14).

“은혜로”라는 말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사역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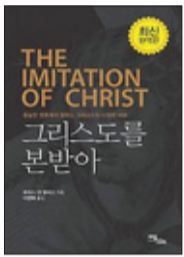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켈피스 | 이담북스 | 348쪽

이 고전은 간결하고 꾸밈 없는 정통적인 문체로 특히 칭찬받고 있으며, 중세 특유의 아름다운 라틴어로 쓰여 있다. 하나님께로 향한 조심성 많은 사랑과 경건함이 지면에 배어 나온다. '제2의 복음서'라 칭송받으며 시공을 초월해 성서에 이어 가장 많이, 그리고 친숙하게 읽어 온 책이기도 하다.



포도나무 안에 감추어진 비밀

앤드류 머레이 | 누가 | 128쪽

영적 거장인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천국 포도나무 열매 이야기'다. 저자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천국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포도나무의 생명력은 순종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해석한 그의 두 작품 중 후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매'에 담긴 심오한 교훈을 전한다.



다니엘 전도법

추영춘 | 콤팩 | 264쪽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가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한다.



돈의 신학

필립 굿처월드 | 대장간 | 352쪽

세계 경제 속에서의 사회적 대조로서, 역동적인 사회적 힘으로서 돈의 중요성을 탐구한다. 저자는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게오르크 지멜과 비교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돈의 신학을 검토하지만,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돈이 본질적으로 예비금을 넘어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신용과 부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REVIEW

도복을 갖춰 입고, '주님의 道' 를 몸으로 익혀라

몸으로 실천하는 진짜 제자도, '예수도'

책의 표지는 저자가 말하려는 바를 잘 묘사하고 있다. '도복(道服)'을 입고 서 계신 '커다란' 예수님 아래로, 가르치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작은 사람들'도 모두 '도복'을 입고 있다.

제목이 '제자도'가 아니라 '예수도'인 점도 상징적이다. 부제, '몸으로 실천하는 진짜 제자도'가 이를 잘 설명한다. 실천의 의미가 강했던 단어 '제자도'는, '몸으로 실천하는·진짜' 같은 단어가 덧붙여야 할 정도가 됐다. '제자도'가 너무 흔히 사용돼 의미가 희석됐거나, 사변적이고 특정 계층만의 용어로 다소 변질됐거나, 아니면 너무 다양하고 '넓은' 의미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저자는 '예수님의 도'를 행하며 살

고 싶은 크리스천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대략 강의실보다 태권도 도장(道場)과 같은 성격의 '제자도'라고 말한다. "단지 보기만 해서 태권도를 배울 수 없다."

얼마 전 소천한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방법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저자인 마크 스캔드렛(Mark Scandrett)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상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도록 돕는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는 회심한 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마 5:24)'라는 성경 구절을 읽고는, 잘못된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적어 내버리라(마 5:30)'는 말씀을 접하고는 실제로 칼을 꺼내 들고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초기 실험은 유치하고 감상적이며 일면 순진해 보이기도 했지만, 저자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빠른 속도로 발견해 갔다. 이는 원하는 이들과 함께 40일간 육류 섭취, 미디어, 자위행위를 금하고 옷장의 옷가지 수를 제한하며, 산상수훈을 외우는 '프로젝트'로까지 발전했다. 광적인 사교적 성향과 강박적인 인터넷 포르노 중독자들에게도 훈련과 처방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낸다.

어쨌든 저자는 말씀을 그저 읽고 이는 데 그치거나 외워서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태권도



예수도(Practicing the Way of Jesus) 마크 스캔드렛 | 이희경 역 | IVP

를 연습하듯 몸에 밸 때까지 꾸준한 연습과 실천에 나서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고독한 자기 성찰과 기도에 관한 고전 읽기, 정기적으로 영적 지도자를 방문하는 일 등 '내적 여정' 뿐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능동적·공동체적으로 추구하는 봉사활동 등 '외적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실천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 제자들도 일단 따라간 뒤에, 점차 그 분이 누구신지 배웠다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도장'은 하나의 '전도장'이기도 하다. 책은 실천서답게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요령 등을 제시하지만, '실수'로부터도 배워야 함을 일깨운다. "실제 삶은 손쉬운 대답과 특효약보다 언제나 더 엉망이라는 걸 알 테니."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2013	ACCENT GLS M/T 2013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red;">\$499 Lease</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red;">\$109 Lease</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red;">\$99 Lease</p>	<p>VIN# NDU423702</p> <p>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red;">\$89 Lease</p>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9월 11일 까지입니다.

Tel. 562.900.2399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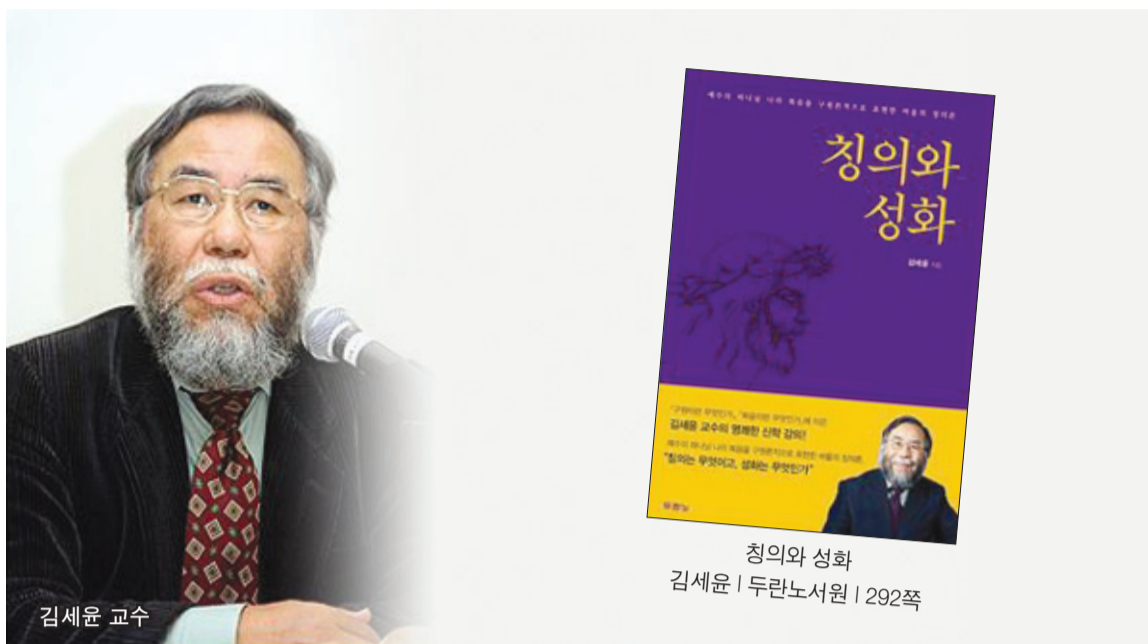
신간 김세운 박사의 강연집 「칭의와 성화」

“칭의란? ‘윤리적인 삶’ 무시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

박영선 목사가 '성화의 목회자'라면,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는 '칭의의 신학자'라 할 수 있다. '새 관점'과 싸우면서 평생 '바울의 칭의론'을 연구해 온 그가 「칭의와 성화(두란노)」를 펴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한 바울의 칭의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이 책은, 지난해 그가 같은 제목으로 했던 종교개혁 기념 강의 내용을 기초로 한다.

그는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됨'으로 표현되는 한국교회 '칭의론'의 복음이 많이 오해되고, 왜곡과 변질로까지 치달았다고 우려한다. '성화'를 '칭의'와 분리해서 사고하는 데서부터 칭의론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강의를 부탁 받았지만, 제목을 '칭의와 성화'라고 달았다. "성화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칭의론의 구조부터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칭의론-그리스도의 죽음을 형벌적 범주로 이해하고 대신적 속죄 행위로 해석하며(the penal substitutionary theory of atonement), 부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 사건의 열매로 마찬가지로 법정적 범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의인'이라 칭해짐, 선언됨, 인정됨'으로 해석하는-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20세기 초 기독교 내 브레테와 슈바이처 및 이른바 '자유주의 유대인들'



부터 1970년대 샌더스와 레이제넨, 던과 톰 라이트까지 이어진 '새 관점' 학파를 소개하고, 그의 잘 알려진 '응전'도 담았다.

그는 이에 대해 "새 관점의 주장자들은 칭의론의 선교적·교회론적 의미에 집착하다, 법정적 의미를 무시 또는 경시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반면 전통적 칭의론의 옹호자들은 후자에 집착하면서 전자를 무시한 것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상호 접근하고, 두 관점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칭의론의 법정적·관계적 의미를 살피는데, 우리나라에선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 범주로만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로의 이전'이라는 관계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칭의론은 윤리를 낳지 못했다"는 슈바이처의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

또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무관하게 해석하다 보니 칭의의 의미가 편향적 또는 왜곡 이해됐고, 그 결과 칭의론은 '의인으로서의 삶이 없으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리', 심지어 '의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교리'로 전락했다고 꼬집는다.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믿음을 윤리와 분리시켰고, 윤리는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진

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으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극을 가져 온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서의 칭의론'을 살피면서, 저자는 의인으로 다만 여겨지기만 하는 것(전통적 개신교 입장)도 도덕적으로 변화되어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전통적 가톨릭 입장)도 아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칭의론의 본질임을 설파한다.

우리는 바울의 구원론을 '칭의-성화-영화'의 세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틀리진 않았지만 정확하지도

않다는 것이 김세운 박사의 입장이다. 전통 신학적 '구원의 서정'에서의 '성화'는 칭의의 현재 단계에 대해 이름을 잘못 붙였다는 것. 그에 따르면 칭의 다음이 성화가 아니라, 둘은 같은 실재를 말하는 다른 그림언어들(metaphors)이다. 칭의가 죄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구원을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 표현하는 법정적 뉘앙스라면, 성화는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오염으로 보고 구원이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는 제의적(cultic) 뉘앙스이다. 한 마디로 '성화'는 칭의의 구조 속 현재적 삶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동의어적 어휘이다.

이렇게 보면, '성화'는 확정된 구원 이후 하늘나라 상급의 구도가 아니라, '칭의된(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려고 더 노력하게 만든다. 김세운 박사는 "은혜로만·믿음으로만의 구원과 윤리적 요구의 통합이라는 논지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칭의(장로교)와 성화(감리회·성결교) 중 어떤 면을 강조하는 전통에 속하든 우리 모두 칭의론은 결국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들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순종(롬 1:5, 16:26)을 골자로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이로써 의로운 삶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그릇된 칭의론이 아니라, 이를 요구하고 가능하게 하는 올바른 칭의론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이대웅 기자

칼빈주의자 아더 핑크의 「이신칭의」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 아더 핑크 | 누가출판사 | 173쪽

칼빈주의의 거장으로,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친 성경학자 아더 핑크의 「이신칭의」가 최근 출간됐다.

저자 아더 핑크는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칭의'를 설명하면서, 칭의라는 복된 교리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고 말한다.

'칭의' 교리는 사도 바울의 심령에 평화와 희락을 가져다 줬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라(롬 7:24)"라고 울부짖으며 죄적인 현실에 괴로워하면서도,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높인다.

사도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3-35)"라며 '칭의'를 붙들었다.

책은 칭의의 의미, 칭의의 난제, 칭

의 기초, 칭의의 본성, 칭의의 원천, 칭의의 대상, 칭의의 도구, 칭의의 증

거, 칭의의 결과 등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Advertisement for WCIU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Large advertisement for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featuring the slogan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and '복사기 무료' (Free Copiers). It includes images of copiers and promotional text: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and 'FMB RENT PROGRAM' with details about service and parts.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엔진 & 미션 전문

오일 교환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타이밍벨트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coffeetree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백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 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년]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중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내지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극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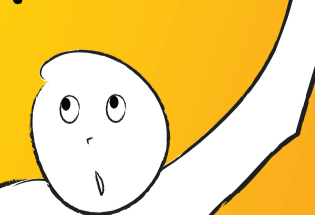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BIZ

똑똑한 차량 블랙박스로 안전 운전을~!

개인 차량 포함해 교회, 학원, 상업용 차량에도 인기



<블랙박스 DR400G-HDII>

한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차량 블랙박스가 미주 한인들에게도 큰 인기다. 예상치 못했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순간이 녹화된 자료가 있다면 향후 법적 대처나 보험 사제출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최근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고 억지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에 대처하기도 좋다.

단순히 차량의 내외부를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블랙박스는 진화하고 있다. 중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목격자 역할을 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운전습관과 주행 경로까지 GPS로 분석한다.

스마트폰 앱도 개발돼 블랙박스가 녹화 중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며 초고화질로 정보를 저장해 식별력도 높아졌다. 차량의 충돌을 감지하면 더욱 상세하게 GPS를 동원해 위치와 시간, 주변 상황을 집중 기록한다.

특히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과 연로하신 분들께 꼭 필요하며 설치와 조작은 간편하면서도, 사이즈도 작은 디자인이 인기다. 차량 전방 혹은 후방에 부착할 경우 운전에도 방해도 전혀 되지 않는다.

블랙박스는 개인 차량 외에 교회, 회사 등이 사용하는 차에도 인기다. 특히 이런 차량은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신속 정확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가 권장된다.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어린이들을 픽업하는 학원 차량이나 택시, 단체 버스 등에는 오히려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블랙박스 제품을 보유, 판매하고 있는 H&G Global, Inc 사의 David Lee 대표는 "IT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한국의 훌륭한 제품을 미주 지역에 공급하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구입문의 : (213) 235-7836, (310) 902-3944(세일즈매니저 조셉 박)

현장이야기 ◆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소감문 ◆

“아버지가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역할과 사명을 일깨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온 <두란노 아버지학교>. 그간 미주에서도 아버지학교를 통해 수많은 가족들이 용서와 치유,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이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이끄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에 가정내 구성원간의 대화법, 남편과 아내의 사랑 표현법, 아버지의 역할, 십대 자녀와의 대화 물꼬를 트는 방법 등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비롯 주변의 여러 사연들을 나눔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최근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다녀온 한 아버지의 뜨거우 고백과 생생한 간증이 담긴 수료소

감문 일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제가 아버지학교에 오게 된 것은 아내의 권유도 있었지만,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6년차, 두 아이는 각각 5살, 3살이었고 한창 귀여울 때이지만, 서서히 본인들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부모에게 야단맞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엄하면서도 자애로운 성격이어서 두 아이가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저는 아내의 훈육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주로 등장해 아주 엄하게 아이들을 혼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 또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칭찬보다는 훈육이나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란 편이라 그런지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잘 설명해 주고 달래거나 용납해 주기 보다는, 분노를 잘 억제하지 못하고 심하게 야단치곤

했습니다. 심지어 종종 손찌검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야단침에도 잘뚫힌 습관이 잘 안고쳐지며 심지어 부모의 혼냄에 내성이 생겨가는 것을 볼 때면, 좌절감까지 느꼈습니다.

가정교육에 매우 엄하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아이들도 버릇있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제 감정에 휩쓸려 아이들을 심하게 혼내고 난 후에 후회할 때는, '나도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혼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과 '그래도 이견 심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교차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그 이후에도 반복됐고, 시간이 갈수록 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약행은 대물림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풀지못한 원망감 같은 감

정의 고리가 이런 저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뿐 현실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다'며 당위성만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버지학교 수업을 통해 하나님에게 제 마음 속에 있는 분노, 짜증, 억울함을 없애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님에게 솔직한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한결 부드럽게 대하고 이런 제 모습에 아내도 많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로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 믿으며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LA 70기 수료자 우○○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8월 스페셜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2013 ACCENT G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7,340 (STK #115126)
PH HYUNDAI D/C \$889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75 (STK #702299)
PH HYUNDAI D/C \$1,328 LEASE CASH \$1,0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EQUUS SIGNATURE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 069499)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000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